국어 영역

제 1 교시

[1 ~ 3] 다음은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운동은 포스터 부착, 교문 앞 유세 등을 통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선거 운동 방식과 병행하여 공식적으로 SNS 선거 운동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도입해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도입해야 합니다. 작년에 후보자와 함께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교문 앞 유세에도 참여했었는데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SNS는 학생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숙한 매체이므로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도입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정말 SNS가 모든 학생들에게 친숙한 매체일까요? 혹시 SNS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찬성 1: 물론 SNS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참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학교의 SNS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86% 이상의 학생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선거 운동과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모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듭니다. 저도 작년에 선거 운동에 참여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SNS상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댓글을 달아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SNS상에서는 간단한 소통을 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될까요?

반대 1: SNS상에서의 소통이 간단한 것은 맞지만 질문과 답변이 연속적으로 오가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 두 번째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2: 학생회장 선거에 SNS를 활용한다면 후보자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자세히 알릴 수 있고,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선거 운동 방식은 후보자가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지만, SNS를 활용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1: SNS상에서는 주로 자신의 견해를 짧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약에 대한 질 높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찬성 2: 자신의 견해를 짧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의사소통의 질이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의견에 여러 명이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 댓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서로 올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통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가 두 번째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선거 운동에 SNS를 활용하면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칫 후보 간의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비방과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등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미 확산된 거짓 정보나 비방으로 인한 문제를 수습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2: _____[가]_____

1. 위 토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찬성 1'의 반대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찬성 2'는 입론에서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새로운 방식의 도입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⑤ '반대 2'는 입론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한 후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2. '반대 2'의 입론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SNS에서의 비방과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규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② 비방과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와 SNS에 의한 과열 경쟁 규제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③ 기존 선거 운동 방식에서보다 SNS에서 거짓 정보의 파급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④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거짓 정보 확산이라는 역기능이 SNS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⑤ 학생 스스로 비방이나 거짓 정보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면 SNS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3. <보기>의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동원이론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의 증가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치 참여가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나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들이 인터넷이 지닌 정보 습득의 용이성과 상호 작용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 관련 정보와 정치적 토론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은 정부와 시민이 의견을 주고받는 전자적 피드백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정치 학회 보고서 –

① 인터넷이 정치적 토론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SNS를 통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찬성 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② 인터넷이 상호 작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SNS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면 후보자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찬성 2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③ 인터넷이 전자적 피드백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통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2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④ 인터넷이 가진 정보 습득의 용이성에 대한 내용을, SNS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다는 반대 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⑤ 인터넷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을,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대 2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4 ~ 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시사성 있는 내용의 제재를 찾아 주장하는 글쓰기

[학생의 초고]

최근 언론을 통해 국내외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 창업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선뜻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수가 많지 않고, 막상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해도 자금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창업 분야도 단순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창업에 뛰어들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재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작 창업 자금을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 많은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주로 선택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 자금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술 개발비나 임대료, 홍보비 등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 예비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준비 교육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

[가]

4.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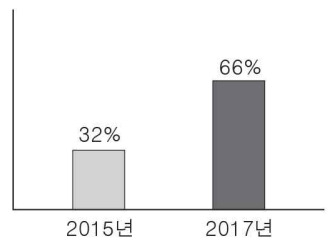
① 인용을 통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
④ 중심 제재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⑤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5.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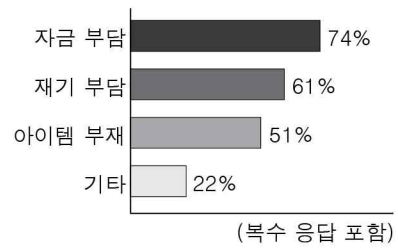
〈 보 기 〉

Ⅰ. 통계 자료

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



2. 청년들이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



Ⅱ. 신문 기사

청년 창업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숙박업, 요식업과 같은 단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비지식기반 생계형 창업 비중이 64%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시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선배 창업 전문가의 인적 교류를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선배 창업 전문가가 보유한 기술력, 자본, 경험을 결합해 협업과 공동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신문 –

Ⅲ. 전문가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에 실패할 경우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좋은 창업 계획만 있다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금융권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고 창업 투자금의 대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청년 창업자들 간의 정보 공유, 창업 전문 컨설턴트나 투자자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실제 창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Ⅰ-1을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② Ⅰ-2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창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청년들이 재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③ Ⅱ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청년 창업이 단순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실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한다.
④ Ⅰ-2와 Ⅲ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창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권이 창업 자금 지원 제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넷째 단락에 추가한다.
⑤ Ⅱ와 Ⅲ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협업과 공동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넷째 단락에 추가한다.

6. 다음은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에 따라 결론을 작성하고자 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님:** 글을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드러내고, 비유법과 대구법을 활용해 보면 좋겠어.

① 이처럼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기술 습득에 대한 기회는 늘려 준다면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것이다.
② 이처럼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준다면 청년 창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③ 이렇게 해서 청년들의 꿈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핀다면 우리는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④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자금 부담을 낮춘다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어 취업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⑤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면 청년 실업은 줄어들고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서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7 ~ 10] (가)는 학생의 발표이고 (나)는 발표를 들은 학생이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제가 소개할 좌우명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저에게 이 명언이 특별한 이유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최근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작 박물관'과, 실패를 대하는 자세를 담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패 극복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 사례는 널리 알리지만 실패는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실패한 제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실패작 박물관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 준 후) 정말 많은 전시품이 있지요? 어떤 전시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그렇군요. 아쉽게도 이 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원래 명칭은 신제품 작업소였습니다. 설립자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신제품을 모아 이곳을 세웠는데, 모은 제품의 80% 이상이 시장에서 실패해 버린 겁니다. 결국 이곳은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달리 실패작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10만여 점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그 실패 이야기에 주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과의 인터뷰입니다. (영상을 보여 준 후) 화면에서 보셨듯이 관람객들은 단순히 실패작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물 소개 자료에 실려 있는 실패 이야기를 읽고 새로운 도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패작 박물관은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제품들을 통해 실패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 실패작을 숨기지 않고 전시하여 실패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이를 통해 우리도 실패를 창피하게 생각하여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패 극복의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책에서 찾은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기 비난과 같은 감정적 판단을 넣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패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인정이 필요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과정 속에서 나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지 신중하고 냉철하게 실패의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 숨어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

오늘 친구의 발표를 듣고 실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특히 실패의 경험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것을 나의 경험에 적용해 보았다.

1학기 때 나는 친한 친구들과 '책사랑' 자율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우리는 읽을 책의 목록을 정한 후 각자 ㉠ 읽고, 토론하기로 했다. ㉡ 하지만 활동 일지를 바탕으로 학기말에 최종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처음에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갈수록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한 달에 두 번으로 계획했던 토론 모임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활동보고서 작성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동아리 부장으로서 내가 한 일을 돌아보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모임 장소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노력했고, 토론 모임에 자주 빠진 친구들을 찾아가 끝까지 함께하자고 설득했다. ㉢ 토론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좋지 못했을까? 친구들의 관심을 고려하기보다는 유명한 책 위주로 목록을 선정하다보니 흥미를 갖고 책을 끝까지 읽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바뀐 모임 장소와 시간을 제때에 ㉣ 알려서 공지해 주지 못해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고 나니 내년에는 자율 동아리를 잘 ㉤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내 마음 속 실패작 박물관에는 더 많은 전시물이 생기겠지만, 그때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7. (가)의 발표자가 사용한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질문을 던지고 그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③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④ 도입부에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⑤ 마지막 부분에 요약된 내용을 나열하여 청중이 핵심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8. (가)를 들은 청중의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패작 박물관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② 실패작 박물관의 원래 명칭은 무엇인가요?
③ 실패작 박물관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④ 실패작 박물관에는 얼마나 많은 제품이 전시되어 있나요?
⑤ 실패작 박물관의 실패작들은 지금도 시중에서 볼 수 있나요?

9. 다음은 (가)를 들은 학생이 (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발표자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라고 했지. 나도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 분석하여 제시해야겠어. …… ㉮
- 발표자는 실패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했지. 나도 자율 동아리를 잘 운영하지 못했던 경험을 자세하게 언급해야겠어. …… ㉯
- 발표자는 실패를 정면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나도 실패를 숨기려고 했던 나의 인식이 전환된 것에 대해 언급해야겠어. …… ㉰
- 발표자는 실패 상황을 재해석할 때 자기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나는 동아리 부장으로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부분을 제시해야겠어. …… ㉱
- 발표자는 실패의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지. 나도 실패의 경험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언급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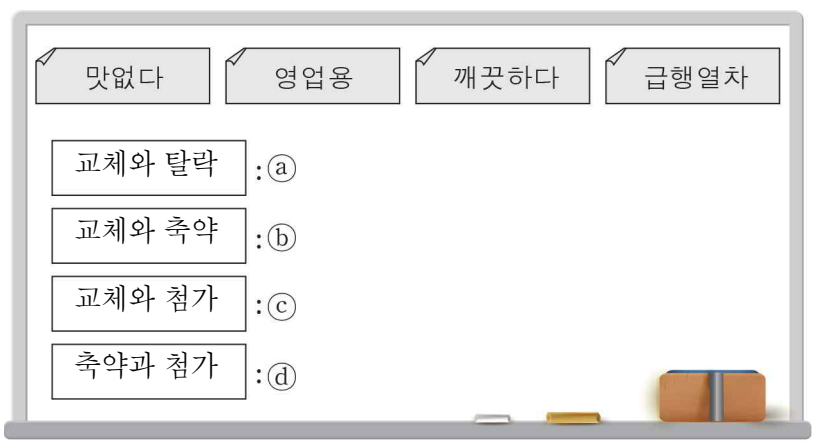
10. (나)의 ㉠ ~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책을'을 첨가한다.
②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로 바꾼다.
③ ㉢은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④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알려서'를 삭제한다.
⑤ ㉤은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운영될'로 바꾼다.

11.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음운 변동 현상인 교체, 탈락, 축약, 첨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둠별로 칠판에 제시한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한 후,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알맞은 단어 카드를 붙여 볼까요?



	ⓐ	ⓑ	ⓒ	ⓓ
①	급행열차	깨끗하다	맛없다	영업용
②	맛없다	급행열차	영업용	깨끗하다
③	맛없다	깨끗하다	영업용	급행열차
④	깨끗하다	영업용	맛없다	급행열차
⑤	깨끗하다	맛없다	급행열차	영업용

12.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물리다[1]
동사
【…에/에게】
다시 대하기 싫을 만큼 몹시 싫증이 나다. ¶ 세 끼 꼬박 국수를 먹어서 이젠 국수에 물렸다.

물리다[2]
동사
[1] 【…에/에게 …을】
「1」 '물다[2][1] 「2」'의 피동사. ¶ 사나운 개에게 팔을 물리다.
「2」 '물다[2][1] 「3」'의 피동사. ¶ 어젯밤 모기에게 코를 물렸다.
[2] 【…에게】
'물다[2][1] 「4」'의 피동사. ¶ 그놈들에게 잘못 물렸다가는 큰일 치른다.

물리다[3]
동사
[1] 【…을】
「1」 '무르다[2][1] 「1」'의 사동사. ¶ 친구는 새로 구입한 책을 모두 물렸다.
[2] 【…을 …으로】
「1」 ____㉠____ ¶ 약속 날짜를 이틀 뒤로 물리다.

① 물리다[1], 물리다[2], 물리다[3]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군.
② 물리다[2], 물리다[3]은 각각 다의어임을 알 수 있군.
③ 물리다[1]의 용례로 '버스가 고장이 나 승객들이 차표를 도로 물리는 소동이 있었다.'를 추가할 수 있군.
④ 물리다[2][1]은 물리다[1]에 비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군.
⑤ 물리다[3]의 ㉠에는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다.'가 들어갈 수 있겠군.

1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부사는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문장의 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뉜다. 이 중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체언을 수식하거나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ㄱ. 그녀는 매우 빨리 달린다.
ㄴ. 설마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ㄷ.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다.
ㄹ. 내 차는 얼마 전까지 아주 새 차였다.
ㅁ. 과연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

① ㄱ에서 '매우'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② ㄴ에서 '설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③ ㄷ에서 '바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④ ㄹ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다.
⑤ ㅁ에서 '과연'과 '정말'은 문장을 수식하고 있다.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제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문법 범주를 가리킨다. 이때 발화시는 말하는 시점을,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말한다.

과거 시제는 일반적으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간 표현으로 규정되는데, 선어말 어미 '-았-/-었-'과 관형사형 어미 '-(으)ㄴ' 등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결합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현재와 단절된 상황이나 먼 과거는 '-았었-/-었었-'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중 '-더-'는 발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일을 회상할 때 쓰이는데,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쓰임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았-/-었-'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는 현재의 일이나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미래의 일을 표시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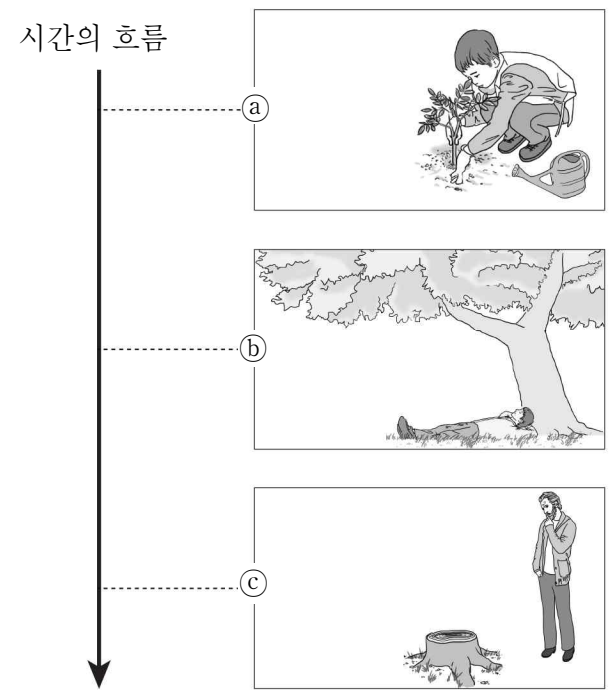
현재 시제는 일반적으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다. 동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 '-는-/-ㄴ-'을 통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또한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을 통해서도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결합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현재 시제가 사용된 표현은 보편적인 사실과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이다. 이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는 보편적으로 '-겠-'이 사용되며, '-(으)리-'가 사용되어 예스러운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로는 '-(으)ㄹ'이 사용된다. 미래 시제는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결합하여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도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 체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동일하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중세 국어에서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없이 표현하거나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중세에는 '-더-'가 현대 국어와는 달리 모든 인칭에 두루 쓰였으며,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다-'로 나타났다.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ᄂᆞ-/-ㄴ-'을 써서 표현하였으며, 이는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미래 시제는 '-리-'를 써서 표현하였다.

14. 다음은 현대 국어의 시제에 대한 탐구 활동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다음의 장면들로 문장을 만들어 현대 국어의 시제를 탐구해 보자. 이때 발화자는 '나'이며 ⓐ, ⓑ, ⓒ 장면의 인물도 발화자와 동일하다.



탐구 내용: ㉮

① ⓐ에서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일하다면,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나는 묘목을 심는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② ⓐ에서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묘목이 자라면 나무 아래에서 잘 수 있겠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③ ⓐ를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에서 발화한다면,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나는 묘목을 심었었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④ ⓒ에서 ⓑ를 회상하여 발화할 때 '나는 나무 아래에서 자더라.'와 같은 표현이 어색한 것은 선어말 어미 '-더-'의 사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⑤ ⓒ에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할 때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이제 나무 아래에서 낮잠은 다 잤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주거미 닐오ᄃᆡ "내 ᄒᆞ마 명종(命終)호라"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주검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죽었다."

(나) 내 롱담ᄒᆞ다라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내가 농담하였다.

(다) 네 이제 또 묻ᄂᆞ다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네가 이제 또 묻는다.

(라) 하ᄂᆞᆯ히며 사ᄅᆞᆷ 사ᄂᆞᆫ 짜ᄒᆞᆯ 다 뫼호아 세계(世界)라 ᄒᆞᄂᆞ니라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다 모아서 세계라 한다.

(마) 내 이제 분명(分明)히 너ᄃᆞ려 닐오리라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내가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겠다.

① (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② (나): 주어가 1인칭이므로 선어말 어미 '-다-'를 사용하여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③ (다): 선어말 어미 '-ᄂᆞ-'를 통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④ (라):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군.
⑤ (마):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변화라는 현상의 실재(實在) 자체에서부터 종류, 원인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먼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 믿음을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란 말로 표현했다. 새로운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들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불꽃이 끊임없이 흔들리듯이 항상 변화하고 있는 '불'을 세계의 근원적 요소로 보았다.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존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므로, 절대적인 무(無)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과 같은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고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을 통해 흔히 경험하는, 변화라고 믿는 현상이 사실은 착각 또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

이와 같이 변화라는 현상의 실재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된 이후, 후대에 이르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그들은 변화에 대한 앞선 두 철학자의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그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플라톤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하여 이원론적 세계관을 확립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상 세계를 거부했다. 그는 변화의 실재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상반된 견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에서 '기체(基體)'와 '형상(形相)'이라는 개념을 통해 변화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다. '기체'란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변화의 토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형상'이란 그런 토대 위에 구현되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할 때 머리카락은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기체이며, 검은색과 흰색과 같은 머리카락의 색깔이 형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란 현실 세계에서 실체의 기저에 깔린 머리카락이라는 기체 위에서 검은색의 형상이 흰색의 형상으로 대체되는 현상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A] 또한 그는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먼저 변화를 실체적 변화와 비실체적 변화로 구분하였다. 실체적 변화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변화를 가리킨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변화의 전체 과정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마치 애벌레 자체가 소멸하고 나비가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니데스와 마찬가지로 무에서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모든 변화에서 기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적 변화는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기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기체가 없이 무로부터의 생성이나 무로의 소멸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비실체적 변화에는 얼굴이 빨개지는 등의 질적 변화, 작은 풍선이 커지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등의 양적 변화,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장소 변화가 있는데, 이들이 비실체적이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또는 많이 변하지 않아서 기체가 분명하게 식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소 변화의 경우 실체 자체는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는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 철학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규정했다. 그는 다수의 저술 속에서 변화 자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우주, 자연물, 인간 등의 사례에 적용할 정도로 변화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근대 자연 과학의 발전에 밑바탕이 되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을 통해 경험한 변화를 착각으로 간주했다.
②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의 실재를 자연 현상을 통해 설명하였다.
③ 플라톤은 변화에 대한 견해를 적용하여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④ 변화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이룬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자연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⑤ 파르메니데스는 세계를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17. 윗글을 읽고 변화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와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변화의 실재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

① ㉮: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함.
② ㉮: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함.
③ ㉯: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함.
④ ㉯: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함.
⑤ ㉯: 변화의 실재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견해와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함.

18. [A]를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구 분	변화 전	→	변화 후
ㄱ		→	
ㄴ		→	
ㄷ		→	

① ㄱ에서 변화 전의 개구리가 다른 장소에서 이동해 왔다면 그것은 비실체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② ㄱ에서 변화 전의 개구리의 피부색이 변화 후와 같이 바뀌었다면 색깔이라는 형상이 대체된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③ ㄴ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식별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④ ㄷ은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실체의 크기가 양적으로 증가한 비실체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⑤ ㄱ, ㄴ, ㄷ은 모두 변화 과정에서 기체가 실체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탈레스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는 물이 그 본성상 여러 가지로 변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구성하므로,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근원적인 요소인 물 자체는 결코 변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만물의 근원을 '아르케(arche)'라고 한다. 아르케를 주장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다.

① 헤라클레이토스와 탈레스는 모두 '불'을 통해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였군.
② 탈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하였군.
③ 파르메니데스는 탈레스와 달리 만물의 근원적 요소 그 자체는 변할 수 없다고 여겼군.
④ 파르메니데스와 탈레스는 모두 '물'이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구성한다고 인식하였군.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탈레스는 모두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군.

20.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펼쳤다.
② 그 아이는 동화책을 펼쳤다.
③ 무용단은 환상적인 무대를 펼쳤다.
④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쳤다.
⑤ 그는 오랫동안 독립 운동을 펼쳤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종다리 뜨는 아침 언덕 우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이었다.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리었고
가벼운 날개 밑에 머-ㄹ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낮더라.

자주 투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단애(斷崖)*의 허리에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웃었다.

오늘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
두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곰팽이처럼 얼룩진 수염이 코밑에 미운 너와 나는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고나.

– 김기림, 「추억」 –

* 단애: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겼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겟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다)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놓기 위해 박아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그 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 넣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4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둣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중략)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로 살고 싶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

2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점층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④ 명령형 어미를 반복하여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⑤ 역설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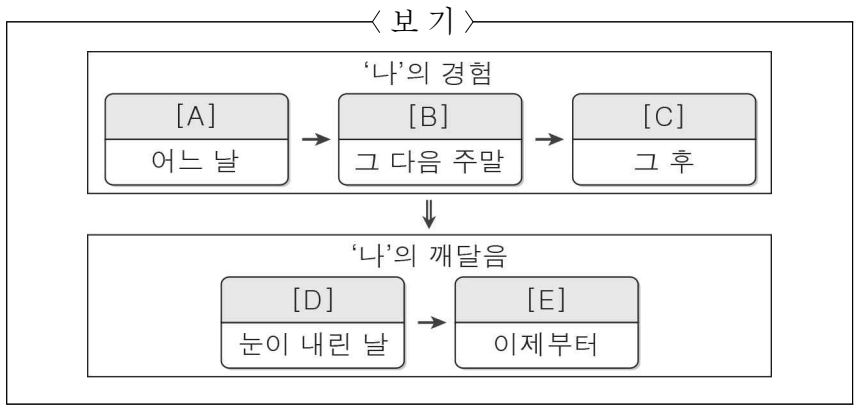
(가)와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변모와 이에 대한 정서가 나타나 있다. (가)에서 화자는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 단절감을 드러내는 반면, (나)에서는 성장하면서 넓은 세상에서 경험이 확장되었던 화자가 모성(母性)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유년 시절의 가치로 회귀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① (가)의 '그날', '오늘'과 (나)의 '어려서', '조금 자라서', '소년 시절'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군.
② (가)의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다는 것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단절감을, (나)의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에서 넓은 세상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알 수 있군.
③ (가)의 '제비 같은 이야기'를 '바다 건너'로 날렸던 모습과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는 모습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군.
④ (나)에서 '칸델라불 밑', '전등불 밑', '대처'는 화자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장소임을 알 수 있군.
⑤ (나)의 '젊은 어머니'와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는 것에서 모성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유년 시절의 가치로 회귀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군.

2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나'가 견문을 넓히는 공간이다.
② ㉡은 '나'가 방황하며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다.
③ ㉠은 ㉡과 달리 '나'가 부끄러움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④ ㉡은 ㉠과 달리 '나'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는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나'가 시련을 극복하는 공간이다.

24. (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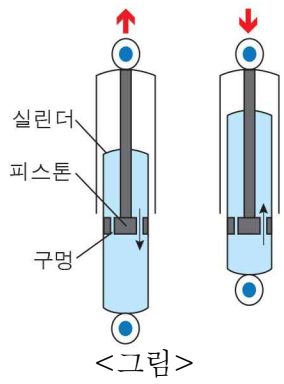
① [A]에서 글쓴이는 나무에 못이 박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연민을 느끼고 있다.
② [B]에서 글쓴이는 장도리를 사용해 나무의 못을 빼고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다.
③ [C]에서 글쓴이는 언제나 제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그늘 밑에서 나무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④ [D]에서 글쓴이는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⑤ [E]에서 글쓴이는 나무를 본받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5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반에 고정된 스프링 끝에 추를 매달면 추의 무게와 스프링이 추를 당기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추는 멈추게 된다. 이 상태에서 추를 아래로 잡아당겨 보자. 추를 당기는 힘으로 인해 스프링은 늘어나는데 아래로 잡아당길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는 추를 당기는 힘에 대항하는 스프링의 탄성력 때문이다. 탄성력이란 고무줄이나 스프링같이 탄성을 가진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며, 길이를 늘이거나 압축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당겼던 추를 놓으면 탄성력에 의해 추는 상하로 진동하다가 추를 당기기 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 이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한다.

㉠ 이러한 추의 진동 과정은 에너지의 전환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추를 잡아당길 때, 추를 잡아당기는 데에 사용한 에너지가 스프링에 저장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를 탄성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당겼던 추를 놓으면 스프링은 탄성력에 의해 스프링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만큼 추를 수직 방향으로 상향, 가속시키는 일을 한다. 즉 스프링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가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수직 상향하던 추는 평형점을 지날 때에 속력이 가장 빠르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 이후 추는 계속 상향하면서 스프링을 누르는 일을 하여 결국 속도가 0인 최고점에 도달하게 된다. 즉 평형점을 지나면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스프링의 퍼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후 스프링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는 상향으로 운동할 때와 방향이 반대일 뿐, 같은 과정을 거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추를 수직 하향하게 한다. 만약 추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고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이 반복되면서 스프링과 추는 계속 진동하게 될 것이다. 즉 퍼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기와 스프링의 마찰 등에 의해 추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므로 에너지 전환 과정이 반복될수록 진동은 점차적으로 줄기 마련이다. 이를 '감쇠 현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진동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감쇠의 원리를 적절히 응용한 것이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이다. 먼저 차체와 바퀴 사이에 위치한 스프링은 진동을 활용하여 지면에서 받는 충격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 평지를 달리던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난 후 높이 변화가 없는 평지를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하자. 과속 방지턱에서 받은 충격으로 스프링은 차체와 바퀴 사이에서 눌려 퍼텐셜 에너지가 스프링에 저장된다. 이 에너지로 인해 스프링은 스프링 상단의 차체를 밀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차체는 수직으로 상향, 가속되다가 평형점을 지나 감속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퍼텐셜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는 최고점에 이른다. 이후 차체는 하향, 가속되다가 평형점을 지나 최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이 반복되면서 차체와 스프링은 진동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프링만으로는, 차체 진동의 평형점에서 최고점이나 최저점까지의 거리인 진폭을 줄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차에 탄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그래서 스프링의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스프링과 연결되어 있는 ㉢ 쇼크업소버이다.



<그림>

<그림>에서와 같이 쇼크업소버는 액체로 가득 찬 밀폐된 실린더와, 그 속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린더의 윗부분은 차체, 아랫부분은 바퀴와 연결되어 있다.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나 차체와 스프링이 진동할 때, 피스톤도 실린더의 상단이나 하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체가 수직으로 하향할 때 피스톤도 실린더의 하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피스톤 아래에 있던 액체는 작은 구멍을 통해 피스톤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구멍의 크기가 작아 액체와 구멍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스톤이 하단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그만큼 줄어들어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 이때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여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에너지의 전환으로 설명하면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쇼크업소버는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이게 된다. 결국 자동차의 승차감은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의 기능이 적절히 결합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 현가장치: 자동차가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바퀴를 통하여 받게 되는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나 화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승차감을 좋게 하는 장치.

25.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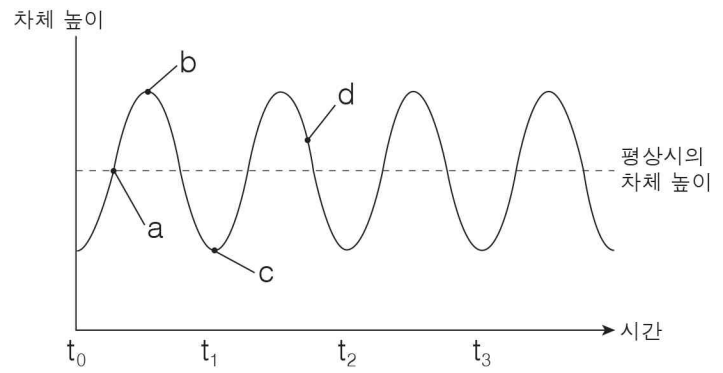
①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의 역사
 – 에너지 전환 이론을 중심으로
②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의 역할
 – 평형점의 이동 원리를 중심으로
③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의 작동 원리
 – 에너지 전환과 진동의 감쇠를 중심으로
④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의 장점과 단점
 – 에너지의 발생과 감쇠를 중심으로
⑤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의 주요 기능
 – 열에너지의 감소 과정을 중심으로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스프링 대신 고무줄을 사용해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② 추를 수직 하향으로 당기면 스프링의 탄성력은 수직 상향으로 작용한다.
③ 추를 당겨서 스프링을 늘이려면 스프링의 탄성력보다 큰 힘이 필요하다.
④ 추를 당겼다 놓은 후 추가 진동하다 멈추는 것은 공기의 저항 등에 따른 감쇠 현상 때문일 것이다.
⑤ 추를 잡아당겼다 놓으면 스프링의 진동은 추를 당기기 전보다 높은 지점에서 결국 멈추게 될 것이다.

[27 ~ 28] <보기>는 윗글의 ㉡의 상황에서 나타난 차체의 진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27번과 28번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 차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외부의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으며, 현가장치에 쇼크업소버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한다.
* t_0은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난 수 초 후이며, t_0에서 t_3까지 걸린 시간은 3초이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는 차체 진동의 평형점으로, a에서의 차체의 수직 방향의 속력은 d에서보다 더 빠르겠군.
② b는 수직으로 운동하는 차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스프링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가 큰 지점이겠군.
③ b와 c는 스프링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겠군.
④ c는 수직 하향하던 차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겠군.
⑤ d는 차체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탄성력에 의해 스프링이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겠군.

28. <보기>의 상황에서 ㉢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할 때,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체의 높이가 a를 지날 때 ㉢의 피스톤은 실린더의 윗부분으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② 차체의 높이가 a에서 b가 되는 과정에서 ㉢의 피스톤 아래의 액체는 피스톤 위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③ 차체의 높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b에서 c까지의 수직 거리는 ㉢의 실린더에서 발생한 마찰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게 될 것이다.
④ 차체의 높이가 c를 지나게 되면 실린더의 아래쪽으로 이동하던 ㉢의 피스톤의 방향은 전환되었을 것이다.
⑤ 차체의 높이가 d일 때 ㉢의 피스톤 아래의 액체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실린더 내부에는 열이 발생할 것이다.

29. 윗글의 현가장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스프링은 열을 탄성력으로 바꾸고, 쇼크업소버는 진동의 충격을 열로 바꾸는군.
② 스프링은 충격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주고, 쇼크업소버는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이는군.
③ 스프링은 차체의 진동방향을 바꾸고, 쇼크업소버는 차체 진동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군.
④ 스프링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쇼크업소버에서는 열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군.
⑤ 스프링에서는 공기와 스프링의 마찰을 늘려서, 쇼크업소버에서는 액체와 피스톤의 마찰을 억제해서 열이 발생되는군.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사(歌辭)는 두 마디씩 짝을 이루는 율문의 구조만 갖추면 내용은 무엇이든지 노래할 수 있었던 양식이다. 시조의 형식이 간결한 것에 비해 가사는 복잡한 체험을 두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길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시조를 길이가 짧다는 의미에서 '단가(短歌)'라고 부르던 것과 구별하여 가사는 '장가(長歌)'라고도 불렀다. 조선 시대의 가사는 보통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전기 가사와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의 후기 가사로 구분된다.

전기 가사는 대체로 사대부들에 의해 지어졌다. 관직에 있지 않은 사대부들은 자연에 묻혀 지내면서 자연에 대한 흥취나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던 가치관을 가사를 통해 드러냈다.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표방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호시가(江湖詩歌)'라는 한 유형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강호시가는 강호의 삶을 표방하기 위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자연에서 느끼는 일체감을 드러냈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공간은 속세와의 대비에서 그 의미가 구체화된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경계로 하는 17세기 무렵부터의 후기 가사에 오면 몇 가지 변화가 생긴다. 작자층의 확대, 제재의 변화, 대상을 보는 시각의 다변화, 표현 방식의 다양화 등이 그것인데 이런 변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었다. 사대부로 제한되었던 가사의 작자층이 확대되자 다양한 관심사가 가사 작품으로 형상화되었고, 각각의 삶이 다른 만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건한 태도로 사물을 바라보고 형상화하던 데에서 나아가 풍자적이고 희화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작품을 등장하게 하였고, 서민의 삶의 어려움이나 그들의 바람을 드러내는 작품을 등장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후기 가사는 체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중시하고, 이념적인 삶보다 현실의 문제를 가사의 제재로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사회를 구분해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나)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물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ᄉᆞ롭다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春氣)를 ᄆᆞᆺ내 계워
소ᄅᆡ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ᄋᆡ 다를소냐
시비(柴扉)예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ᄒᆞ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ᄒᆞᆫᄃᆡ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중략)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ᄂᆡ
연하일휘(煙霞日輝)*ᄂᆞᆫ 금수(錦繡)를 재폇ᄂᆞᆫ ᄃᆞᆺ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유여(有餘)ᄒᆞᆯ샤
공명(功名)도 날 ᄭᅴ우고 부귀(富貴)도 날 ᄭᅴ우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예 엇던 벗이 잇ᄉᆞ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흣튼 혜음 아니 ᄒᆞᄂᆡ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ᄒᆞᆫᄃᆞᆯ 엇지ᄒᆞ리

– 정극인, 「상춘곡」 –

* 소요음영: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나지막이 시를 읊조림.
*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

[A]
조상 덕에 ᄒᆞᄂᆞᆫ 일이 읍중(邑中) 구실 첫째로다
드러ᄀᆞ면 **좌수별감(座首別監)*** 나ᄀᆞ셔ᄂᆞᆫ 풍헌감관(風憲感官)
유ᄉᆞ장의(有司掌儀)*에 그치면 체면 보와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의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서
군ᄉᆞ 강정(降定)* 되단 말ᄀᆞ 내 ᄒᆞᆫ 몸이 허러 나니

[B]
좌우전후 일ᄀᆞ 친척 ᄎᆞᄎᆞ 츙군(充軍)* 되거고야
제사 받들 이ᄂᆡ 몸은 홀일업시 ᄆᆡ와 잇고
시름 업슨 친족들은 자취업시 도망하고
여러 ᄉᆞ름 모든 신역(身役)* 내 ᄒᆞᆫ 몸의 모두 무니
ᄒᆞᆫ 몸 신역 삼냥오전(三兩五錢) 돈피(獺皮)* 두 장 의법이라
열두 ᄉᆞ름 업ᄂᆞᆫ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냥(四十六兩)
해마다 맞춰 무니 석숭(石崇)*인들 당홀소냐

[C]
약간 농ᄉᆞ 전폐ᄒᆞ고 치삼(採蔘)*ᄒᆞ려 입ᄉᆞᆫ(入山)ᄒᆞ여
허항영(虛項嶺)* 보ᄐᆡᆨᄉᆞᆫ(寶泰山)을 돌고 돌아 ᄎᆞᄌᆞ보니
인숨싹은 전혀 업고 오갈피잎 날 속인다
홀일업시 공반(空返)ᄒᆞ여 팔구월 고추바람

[D]
안고 도라 **입ᄉᆞᆫ**(入山)ᄒᆞ여 돈피 사냥 하려 ᄒᆞ고
ᄇᆡᆨ두ᄉᆞᆫ(白頭山) 등의 지고 강 아래로 나려 가셔
싸리 껏거 누ᄃᆡ 치고 잎갈나무 모닥불 놓고
ᄒᆞᄂᆞ님게 축수ᄒᆞ며 ᄉᆞᆫ신(山神)님게 발원ᄒᆞ여
물치츌*을 갖춰 꽂고 ᄉᆞ망*일기 원ᄒᆞ되
ᄂᆡ 졍성이 부족ᄒᆞᆫ지 ᄉᆞ망실이 아니 붓ᄂᆡ
뷘손으로 도라서니 삼지연(三池淵)이 잘 춤이라
입동(立冬) 지난 삼일(三日) 후에 밤새 **눈**이 사뭇 오니
다섯 자 깊이 벌써 너머 사오보(四五步)를 못 옴길ᄂᆡ

[E]
식량 다하고 옷 얇으니 압희 근심 다 떨치고
목숨 슬려 욕심ᄒᆞ여 죽기 살기 길을 허여
인가처를 ᄎᆞᄌᆞ오니 검천(劍川) 거리 첫목이라
첫닭 소리 이윽ᄒᆞ고 인가 적적 ᄒᆞᆫ잠일네
집을 ᄎᆞᄌᆞ 드러가니 혼비빅ᄉᆞᆫ 반주검이
말 못하고 너머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의
송장갓치 누엇다가 정신을 차리고
두 발 끗흘 구버보니 열 ᄀᆞ락이 간 ᄃᆡ 업ᄂᆡ

– 작자 미상, 「갑민가」 –

* 좌수별감: 향청의 우두머리와 그에 버금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
* 유ᄉᆞ장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과 예식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
* 군ᄉᆞ 강정: 군사의 계급으로 강등됨.
* 츙군: 모자란 군역을 채움.
* 신역: 몸으로 치르는 노역.
* 돈피: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석숭: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이름.
* 치삼: 인삼을 캠.
* 허항영: 함남 혜산군과 함북 무산군 사이에 있는 고개.
* 물치츌: 물과 채와 줄.
* ᄉᆞ망: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30.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사는 복잡한 내용을 두루 표현할 수 있는 양식이다.
② 가사는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자유로운 시가 갈래이다.
③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④ 가사는 두 마디씩 짝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장가라고도 불린다.
⑤ 가사의 작자층이 확대된 것과 표현 방식이 다양해진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

31.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도화행화'를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다)의 화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인숨싹'을 생존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군.
② (나)의 '세우'는 봄을 맞이한 화자의 흥취를 돋우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의 '눈'은 서민으로서 화자가 겪는 삶의 고통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는군.
③ (나)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서 바라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다)는 화자가 '입ᄉᆞᆫ'하여 체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④ (나)의 '공명'은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지만, (다)의 '좌수별감'은 사대부들의 경건한 삶의 자세에 대한 화자의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⑤ (나)는 '단표누항'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그의 가치관을 보여 주지만, (다)는 화자가 '뷘손'의 상황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화자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보여 주는군.

32. (나),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③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의성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A]~[E]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갑민가>의 '갑민'은 함경도 갑산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갑산은 변방이자 오지라는 특성 때문에 유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 작품처럼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독자에게 사실감을 부여하는데, 그 지역에서 행하는 민속을 드러내어 사실감을 높이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는 신분의 이동이 많이 발생하였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족에게 세금을 대신 물리는 족징(族徵)의 폐해가 심각했는데, 이 작품에는 이러한 시대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① [A]: 갑민의 처지가 바뀌게 된 원인이 제시되어 있군.
② [B]: 갑민이 족징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군.
③ [C]: 실제 지명을 언급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군.
④ [D]: 갑산 지역에서 돈피 사냥에 앞서 행하던 민속을 짐작할 수 있군.
⑤ [E]: 갑민이 유배를 가는 길에서 겪은 시련을 엿볼 수 있군.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시골 소농의 아들로 자란 방태흥은 상경하여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고생 끝에 6년 만에 자신의 집을 짓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이 전무가 찾아와 방 씨의 집이 자신의 집을 침범했다며 방 씨의 집 벽을 허물라고 요구한다. 이 전무와 방 씨는 다시 만났지만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

"아저씨, 옆집에서 찾아요."
식모아이가 볼멘소리로 투덜대며 들어왔다.
"㉠ 자기가 무슨 높은 양반이라구 오라 가라 야단이람."
"누가 찾는다구?"
"옆집에서요. 뭐 잠깐 왔다 가라나요? 아저씨, 구멍가게 집 아주머니가 그러는데요, 그 집 순 무식한 벼락부자 집안이래요."
"벼락부자?"
"그 남자가 전에는 말예요, 지금은 사장인 자기 형이랑 **가짜 구리무**를 집에서 만들었대요."
옆에서 아내까지 거들었다.
"나두 들었어요. **외제 빈 갑**에다 담아갖구선 집집으로 다니면서 팔았대요. ㉡ 국민학교두 못 나온 일자무식이라지 뭐예요."
"잘 모르는 남의 일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쩨쩨하구 치사한 집안이에요. 오라, 가라…… 아저씨, 제가 가서 그 남자보구 일루 오라구 그럴까요?"
"아냐, 내가 가지."
"축 잡힐 노릇 하시지 말구, 저앨 시켜서 부르세요."
몸이 무거워 아랫목에 누워 있던 아내도 말했지만 방선생은 못 들은 체해버렸다.
이전무는 초저녁부터 파자마 바람이었다. 그는 백과사전 같아 보이는 두툼한 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뒤적이다가 한참 만에 방선생이 담배 한대를 붙여물자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쇼. 밀린 공부를 하다보니 이거 실례했소이다. 대학원엘 갈려고 준비중인데……"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요즘 세상에 까짓 석사학위쯤야 그게 학원가. 대학은 말할 필요두 없구."
"결정은 하셨습니까?"
옆집 남자가 멀뚱해진 얼굴로 시치미를 뗐다.
"무슨 결정 말요?"
"우리 쪽에서 담을 쌓아드리겠단 조건을 수락하는 겁니까?"
그자는 책장을 탁 덮고 뒤로 치웠다. 그러곤 공연히 귀만 후벼파면서 말했다.
"글쎄 그게 곤란하군요. 이 집이 내 집이라면야 그걸로 일단락을 짓겠지만 회사 집이란 말입니다."
집안이 소란스러워지고 짜증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통에 이전무의 말은 끊겨졌다.
"없다는데두 부득부득 지랄야, 지랄이. 너 줄 찬밥이 어딨니? 못가 냉큼?"
"에, 밥 없으면 돈이라두 줘요, 씨."
이전무가 미닫이를 열고 시끄러워, 하며 고함을 쳤다. 투정하는 소리도 더욱 커졌다.
"씨, 안 주면 가나봐라, 좀 줘요."
"시끄럽다니까. 아, 빨리 못 쫓아내?"
이전무가 미닫이를 힘껏 닫고 나서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우리 회사서는 말이오. 허물지 않으려면 손해 배상을 내라이거요."
대문을 발길로 내지르는 소리가 요란해졌다. 이전무가 벌떡 일어섰다.
"이런 쌍눔의 새끼를……"
방태흥씨가 호주머니를 뒤적여 십원짜리 한장을 꺼냈다. 이전무는 매우 요긴한 것을 발견했다는 표정으로 돈을 덥석 받아쥐었다.
"거 마침 잘됐군, 잘됐어."
이전무가 방문 밖으로 돈을 내주며 빨리 쫓아버리라고 외쳤다. 불안해서 당황하는 듯 보였던 그자의 얼굴은 포마드로 빗어붙인 머리털과 매한가지로 빠듯하고 정돈된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방선생이 말했다.
"손해 배상이라면 얼마쯤이나……?"
"십만원이오. 집을 버려놓은 꼴루 봐서라두 꼭 알맞은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방선생은 침울한 얼굴로 말했다.
"능력이 없다는 건 둘째로 치고 부당하군요."
"그럴 줄 알았시다. 못 내겠다면 구청장을 상대로 고소하겠다 이거요. 아마 **고소장**을 냈을걸. 댁은 물론이고 건축 허가를 내준 과장부터 구청장까지 모조리 걸린단 말요."
"고소장을 냈어요?"
"냈지만…… 댁에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면 당장이라도 취하시킬 수 있소. 오늘 이게 마지막 타협이란 걸 잘 알아두쇼."
"십만원이란 부당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말썽난 쪽의 담만을 쌓아 드린다는 조건이…… ㉢ 저로서는 최대의 성의입니다."
이전무가 심각해진 인상을 하고서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비죽이 내밀고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던 이전무가 말했다.
"오만원 내시오."
방태흥씨도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담을 쌓아주려면 아무래도 최소한 삼만원쯤은 먹힐 것 같았다. 물론 남아 있는 벽돌은 묵혀버릴 작정을 했고 생돈을 들일 각오를 하고서였다. 눈 딱 감고 옜다 먹어라 하고 이만원을 더 얹어주고 나면 이 지겹고 고통스러운 이웃간의 다툼은 끝날 거였다. 방선생이 말했다.
"㉣ 그쯤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면서도 방씨는 우선 아득한 근심이 앞섰다. 이전무가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십이월 말까지로 써주시오."

"나머지라뇨? 약속어음은 빚이나 마찬가진데요."

"그야 기분문제루 쓰자는 거 아니겠소? 지내노라면 나중에 가서 받게 되겠습니까. 이웃 사촌이라잖소."

"**이웃 사촌**……"

"자, 그럼 얘긴 끝난 모양이군."

"약속어음은 못 쓰겠군요."

방선생은 맥없이 고개를 저었고, ㉤ 이전무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찰싹 소리가 나도록 두드렸다.

"댁과는 타협이 여엉 안되는구만. 우리네도 좋을 대루 하겠소."

두 사람의 타협은 그것으로 **완전히 결렬**되었다. 그날은 어찌나 피로한 날이었던지 머리카락 꼬리 부근에 작은 종기가 생겨나 방태흥씨는 목을 움직이기가 거북했다. 작았던 멍울이 밤톨만한 뾰루지가 되어 끝이 노랗게 곪아 있었다. 손거울로 비춰보니 그 옆과 아래쪽에도 종처가 지나간 흔적이 흑색 딱지나 반점으로 남아 있었는데 방씨는 자기가 몹시 빈곤하고 천한 태생이란 느낌이 들었다. 종기 자국들은 자질구레하고 사소했던 여러가지의 피해로써 맺혀진 듯이 보였다. 약솜을 쥐고 뾰루지를 비틀어 누르기 시작했다. 고통이 뇌수 속을 깊이 찌르는 듯하다가 눈가에 눈물이 되어 가득히 고였다. 잠시 후 고통이 일시에 가셨지만 물범벅이 된 눈꺼풀을 껌벅이며 그는 멋쩍은 심정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깨알만한 고름 구멍**을 보노라니까 자기는 그 아픔과 상처보다도 훨씬 **미세한 존재**인 것만 같았다.

– 황석영, 「줄자」 –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과거를 회상하여 인물들의 관계가 변화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③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④ 현학적 표현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35.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자신을 무시하는 방 씨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다.
② ㉡: 이 전무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③ ㉢: 이 전무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 이 전무의 입장을 모두 수용한 후에 느끼는 안도감이 드러난다.
⑤ ㉤: 자신의 요구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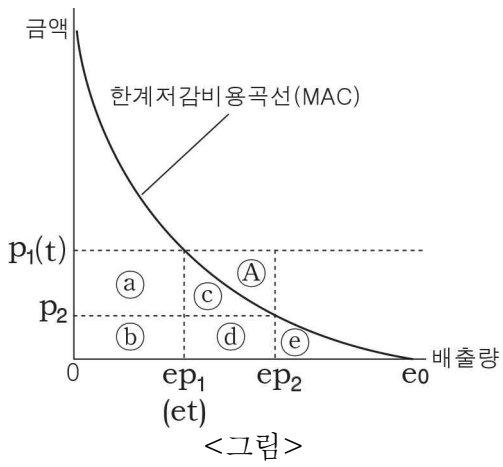
이 작품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물질적 이해관계가 중시되어 가던 1970년대 무렵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즉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되고, 사소한 갈등조차도 공동체의 관습이나 인정보다는 법을 내세워 해결하려는 변화된 시대상이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이러한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갈등 속에서 얻게 된 상처를 통해 자신의 소시민적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

① 이 전무가 '가짜 구리무'를 만들어 '외제 빈 갑'에 담아 팔았다는 이야기를 통해 그가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군.
② 방 씨가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고소장'을 언급하는 이 전무의 모습에서 법을 내세워 갈등을 해결하려는 세태를 볼 수 있겠군.
③ 이 전무가 '이웃 사촌'이라고 한 말을 되뇌는 방 씨의 모습을 통해 그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④ '두 사람의 타협'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물질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당시의 세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⑤ 방 씨가 '깨알만한 고름 구멍'을 보며 자신을 '미세한 존재'로 느끼는 것은 그가 이 전무와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소시민적 모습을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요 환경 정책은 직접 규제와 ㉠ 간접 규제 방식이 있다. 직접 규제는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통해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수많은 오염 배출원을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간접 규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등을 이용한 제도가 있다.

먼저 부과금 제도는 종량 수거료, 배출부과금, 제품부과금 등을 이용하는데,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종량 수거료 제도는 오염 물질의 단위당 수거료를 징수하므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하지만 수거료 요율*을 무조건 높이면,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적인 무단 투기가 성행할 수도 있다. 한편 ㉡ 배출부과금이란 기업 등이 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그림>

배출부과금으로 인해 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어드는 원리는 <그림>과 같다. 제품 생산자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림>의 '한계저감비용곡선(MAC)'은 생산자가 현재 수준에서 오염 물질 배출량을 1단위 더 줄이는 데 필요한 추가적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오염 물질 배출량이 ep_2라면 한계저감비용은 p_2이고 배출량이 ep_1이라면 한계저감비용은 p_1이다. <그림>에서 배출량이 적어질수록 한계저감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배출량을 더 줄이려고 할수록 새로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그래프 각 지점에서의 한계저감비용을 더한 것이므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저감비용을 나타낸다. e_0에서 ep_2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이고, ep_2에서 ep_1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비용은 ⓒ+ⓓ이다. 그런데 정부가 오염 물질 1단위를 배출할 때마다 t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징수한다면 생산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생산자가 ep_2만큼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량 ep_2에 부과금 t를 곱한 면적인 ⓐ+ⓑ+ⓒ+ⓓ+Ⓐ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지불해야 하고, 생산자가 et만큼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원래 배출량이 ep_2인 생산자가 et로 오염 물질을 줄일 때 ⓒ+ⓓ만큼 저감비용이 들지만 배출부과금은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자는 Ⓐ만큼의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 배출량을 et의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이처럼 배출부과금 제도는 정책 수단인 부과금과 규제 대상인 오염 물질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뛰어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부가 각 생산자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정보 획득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산,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제품 단위당 특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제품부과금이라고 한다. 제품부과금은 오염 물질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제품 자체에 부과하는 만큼,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배출부과금에 비해 떨어지나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 제도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이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이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재정적인 보상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 저감시설 보조금제는 오염 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저감보조금제는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보다 적은 양의 오염 물질을 배출할 경우 배출 상한 기준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대해 1단위당 특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 저감보조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 사회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고 하고, 오염 물질 1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비용을 오염의 한계피해비용이라고 한다. '한계피해비용곡선(MDC)'과 '한계저감비용곡선(MAC)'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염 배출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지점에서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결정하고 오염 배출량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기업 등은 배출 상한 기준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 배출량을 줄일 때 드는 저감비용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교하여 배출량을 조절하게 된다. 사회적 최적 수준은 앞서 언급한 배출부과금을 결정할 때에도 기준이 된다. 따라서 배출부과금 제도와 저감보조금제는 오염 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제도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부과금 제도와는 다르다. 예치금 제도 중 소비자 예치금은 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한 후 그 제품을 반환하면 예치했던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예치금 요율이 너무 낮을 경우 경제적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 경제적 유인: 포상금, 과징금 등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경제적인 그 무엇.
* 요율: 요금의 정도나 비율.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경오염 규제 절차의 문제점을 밝힌 후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②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한 후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③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④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 후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⑤ 환경오염 예방 정책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38. ㉠에 대해 진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과금 제도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배출부과금 제도는 정책 수단과 규제 대상 간의 연계성이 높다.
③ 제품부과금 제도는 배출부과금 제도에 비해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이 적게 든다.
④ 보조금 제도와 예치금 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⑤ 소비자 예치금 제도의 요율이 너무 낮을 경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반환율이 낮아질 수 있다.

3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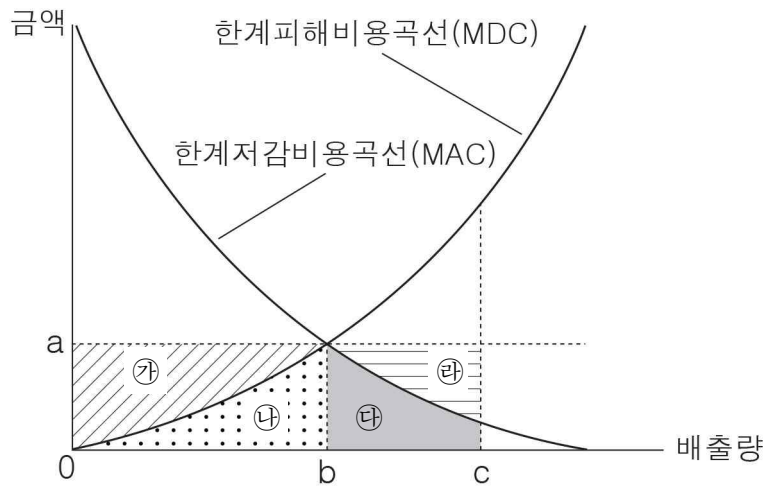
〈 보 기 〉

A국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물질을 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유리병에 든 ○○ 음료수를 500원에 판매하고 빈 병은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B국은 쓰레기 수거료로 1kg마다 1,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 음료수를 550원에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빈 병을 반납하면 50원을 돌려주고 있다. C국은 공장에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1kg마다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였다.

① A국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물질 사용 여부와 유리병 반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많이 소모되겠군.
② B국이 현재보다 쓰레기 수거료 요율을 올린다면 쓰레기의 불법 배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군.
③ B국이 소비자 예치금을 음료의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 음료수의 가격은 A국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겠군.
④ C국의 국민들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들겠군.
⑤ C국은 저감시설 보조금을 통해 생산자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겠군.

〔40 ~ 41〕 <보기>는 정부가 ㉡ 또는 ㉢을 정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0번과 41번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 정부는 위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생산자만을 대상으로 간접규제의 방식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40. <보기>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② 사회적 피해비용과 한계저감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③ 오염 물질 1단위당 부과금에 총 배출량을 곱한 금액이다.
④ 오염 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금액이다.
⑤ 정부가 지시와 통제를 통해 강제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금액이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오염 물질 배출량을 b로 줄이도록 유도하겠군.
②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의 한계저감비용은 b에서보다 c에서 더 높겠군.
③ 정부가 부과금을 a로 정한 후 생산자의 오염 물질 배출량이 c라면 생산자는 ㉮+㉯+㉰+㉱ 면적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지출하겠군.
④ 정부가 부과금을 a로 정한 후 생산자가 오염 물질 배출량을 c에서 b로 줄이려면 생산자는 ㉰ 면적만큼의 저감비용을 지출해야겠군.
⑤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이 c이고 지급하는 보조금이 a라면 c에서 b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 때 받는 보조금은 ㉰+㉱ 면적만큼이겠군.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원나라 때, 혼약을 맺은 유문성과 이춘영은 간신 달목에 의해 온갖 시련을 겪게 되고 일광도사를 만나 병법과 도술을 익혀 장수가 된다. 이때 달목이 황제를 내치고 스스로 황제 달황이 되니, 민심이 들끓게 되고 주원장이 건국의 뜻을 품고 장수 유기와 난을 일으켜 진군한다. 주원장, 유기와 형제의 의를 맺은 유문성과 이장(남장을 한 이춘영)은 각각 원수, 도독이 되어 달목의 부하인 장발과 전투를 벌인다.

날이 저물어 황혼이 되니, 유기는 기력이 쇠진하고, 장발은 조금도 쇠진치 아니하여, 유기의 형세 만분 위태하여 돌아오고자 하나, 만일 잠시 실수하면 생명이 경각에 있는지라, 가만히 기문법을 베풀어 몸을 구름 속에 감추어 혼백을 풍백에 붙이고 성세를 수기에 의지하여 달아나니, 장발이 비록 재주 있으나 어찌 알리오.

밤새도록 싸우다가 그 이튿날 평명에 보니, 유기는 없고 다만 한 기를 데리고 싸웠는지라, 크게 놀라고 냉랭하여 무료히 돌아오며 생각하되,

"유기는 필시 천인이요 인간 사람은 아니로다."

하고 가장 의아하더라.

유기 밤 삼경에 본진에 돌아오니, 모두 보고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수말을 설화하니, 온 군중이 다 칭찬하며 우러러보더라.

이때 유원수 장발 잡기를 가장 염려한대, 유기 왈,

"장발은 한갓 검술만 믿고 대적치 못하리니, 용맹과 둔갑을 겸하여야 능히 제어하리라. 우리 진중에는 유원수밖에 당할 이 없나이다."

이때 주원수 유원수의 손을 잡고 왈,

"이제 모든 장졸은 거재두량*이라. 장군은 장차 어찌하면 좋으리오."

유원수 답왈,

"소장이 능히 당하오리니 근심치 마옵소서. 승패는 병가상사라, 어찌 장발을 근심하여 천하 대사를 등한히 하오리까."

바로 나아가려 하더니, 도독이 또한 원수를 만류하여 왈,

"소장이 한번 나아가 장발을 잡으리이다."

하고, 칼을 들고 말을 내몰아 급히 진전에 나아가니, 장발이 또한 창을 들고 나서며 가로되,

"저 백면 서생 어린 아이야, 가련하다. 네 오늘 비명에 세상을 버리고자 하니, 멀고 먼 황천 길에 조심하여 가라."

하고 나는 듯이 달려드니, 이낭자 미처 몸을 돌리지 못하여 말이 엎어지거늘, 장발이 창으로 겨누며 왈,

"가련타. 네 얼굴을 보니 차마 죽일 마음이 없다마는, 범의 새끼를 놓으면 후환을 끼치는 법이라, 어찌 살려 보내리오."

하고, 호통 일성에 창을 들어 치려 하니, 이장이 정신이 없어 하늘을 우러러 다시 유생을 보지 못함을 생각하고 눈물이 비 오듯 하더니, 이때 유원수 진중에서 바라보다가, 이장의 위급함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말을 타고 크게 소리하여 왈,

"도적은 감히 나의 장사를 해치 말라."

하고 바로 달려들어 치니, 장발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여 원수의 은하검이 번뜻하며 장발의 창 든 팔이 맞아 떨어지는지라. 일변 이장을 옆에 끼고 말에 올라 칼을 들고 달려들어 장발을 치려 하니, 장발이 비록 한 팔을 잃었으나 소리 벽력같이 지르고, 좌수로 삼백근 철퇴를 두르며 달려드니, 이때 유원수가 한 팔에 이장을 안았으매, 한 손으로 칼을 들어 대적할새, 급한 바람이 벽력을 치는 듯, 놀란 용이 벽해를 치는 듯, 천지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더라.

삼십여 합에 승부를 결단치 못하매, 장발은 한 팔을 잃고 자연 기운이 태반이나 감하고, 유원수는 또 한편에 사람을 안았으매 자연 군속함이 많더라.

㉠ 이장이 정신없어 장발에게 잡혀가는가 하였더니, 이윽고 진정하여 가만히 본즉, 유원수에게 안겨 한 말에 실렸는지라, 필시 나를 위하여 한편 팔을 쓰지 못하면 반드시 기력이 쇠진하여 극히 곤색할까 저어하여, 몸을 요동하여 내리고자 하나, 유장이 또한 생각하되, 이장을 내릴 즈음에 혹시 상할까 염려하여, 허리를 단단히 안고 놓지 아니하며 한 팔로 장발을 대적하

더니, 유원수를 쳐다보며 빌어 왈,

"만일 나를 놓지 아니하시면 필연 둘이 다 위태할 것이니 바삐 놓으소서."

한대, 유장이 종시 놓지 않고 왈,

"둘이 다 죽을지언정 놓지 못하리라."

(중략)

장발을 맞아 싸워 오십여 합에 이르매, 칼빛은 번개 같고 호통소리는 천둥 같으며, 고각 함성은 천지 진동하고, 기치 창검은 일월을 가리웠는데, 운무는 자욱하고 말굽은 분분하여, 급한 바람에 모진 상설이 뿌리는 듯, 장수는 정신을 잃고 군사는 넋을 잃어, 구렁에 올챙이떼같이 몰려 서서 구경만 하더라.

홀연 광풍이 대작하며 공중에서 벽력같은 소리 나며 은하검이 번뜻하더니, 장발의 머리 검광을 좇아 떨어지니 한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슬프다, 이 같은 장사로 천수를 알지 못하고 몸을 그릇 역적에게 허하여 천의를 거스르니, 제 비록 천하 명장이요 만고 영웅인들, 당시 창업 주씨를 어찌 대적하며 유문성을 당하리오. 산천이 슬퍼하는 듯하고, 일월이 무광하더라. 장발이 죽었으니 뉘라서 대적하리오. 무인지경같이 짓쳐들어가니, 삼국 청병 장졸과 본진 장졸의 머리 추풍낙엽일러라.

이때 달황이 할 수 없어 수백기를 거느리고 북문을 향하여 도망하거늘, 유원수 그 행동을 알고 급히 좇아가 사로잡고, 간신 당파 수백명을 잡아 무사로 하여금 차례로 처참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서로 치하 분분하더라.

차시, 유원수 이도독과 더불어 전후 지낸 일과 달목 잡은 말을 좌중에 세세히 설화하며 왈,

"달목은 우리와 지극한 원수라. 평생의 품은 원을 오늘에야 풀리라."

하니, 이때 억만 군졸이 이 말을 듣고 대경하여, 그제야 이장이 여자인 줄 알고 칭찬불이하더라.

주원수와 유기 다시 치사하여 왈,

"부부 동심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대공을 세워 평생 원수를 갚고 원을 이루니, 이는 천고에 드문 일이라. 임의로 처치하옵소서."

한대, 유원수 도독과 더불어 칼을 들어 호령하여 왈,

"달목은 들으라. 네 이제 우리 양인을 아는가 모르는가. 나는 여남 땅 유문성이요, 저는 낙양 땅 이상서의 여자 이씨로다. 네 무도하여 음흉한 행실로 감히 우리 선군을 구박하고, 천조를 모함하여 남의 인륜을 작희(作戱)하여 백옥 같은 정절을 자결하게 하니, 그 죄 어떠하며, 또 천위를 찬역하여 현인군자를 참살하며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으니, 네 죄는 하늘에 사무치는지라. 빨리 목을 베어 천하에 회시하라."

하니, 달가의 처와 간신 당류 등이 황겁하여 감히 한 말도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더라.

– 작자 미상, 「유문성전」 –

* 거재두량: 물건이나 인재 따위가 흔해서 귀하지 않음.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③ 인물의 외모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④ 편집자적 논평을 활용하여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과거를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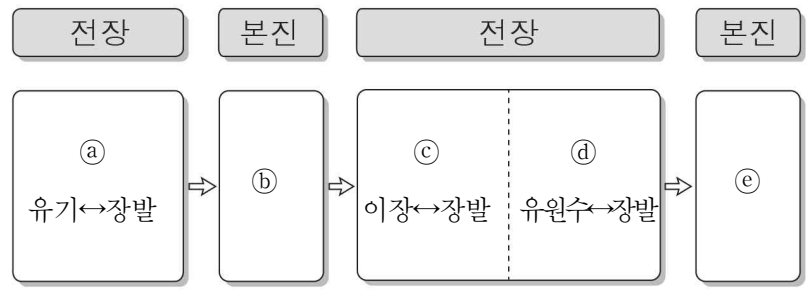
43.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원수는 사로잡힌 달황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② 유기는 도술을 사용해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③ 이장이 여자라는 사실은 달목이 잡힌 후 밝혀졌다.
④ 달황은 장발이 죽은 뒤 전장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⑤ 이장은 유원수의 안위를 걱정하여 자신을 희생하려 하였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문성전>과 같은 창작 군담소설은 주인공이 전투에 등장하는 시기를 조절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보조 인물의 대결은 주인공의 등장을 지연시키고 주인공의 능력이 우월함을 부각하여 독자의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또 주인공의 대결도 쉽게 끝나지 않도록 하여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승리가 이루어지면 독자는 그동안 지속되었던 긴장을 이완하고 감동과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된다. 전투와 관련된 윗글의 장면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에서 유기의 능력을 보여준 후 ⓑ에서 유기가 유원수를 추천하는 것을 보며 독자는 유원수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겠군.
② ⓑ에서 유원수를 만류한 이장이 ⓒ에서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며 독자는 유원수의 등장을 더욱 기대하게 되겠군.
③ ⓓ에서 유원수가 장발과 쉽게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을 보며 독자는 흥미를 갖고 대결 결과를 기대하겠군.
④ ⓓ에서 유원수가 장발을 물리치기 전까지 지속되었던 독자의 긴장감은 유원수가 승리한 후 이완되겠군.
⑤ ⓔ에서 유원수가 달목을 질책하는 것을 보며 독자는 유원수의 우월한 능력에 감탄하여 긴장감을 느끼겠군.

45. ㉠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이야기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건의 흐름을 고려하면 이장은 _____한 것이로군."

① 개과천선(改過遷善)
② 결자해지(結者解之)
③ 기사회생(起死回生)
④ 무위도식(無爲徒食)
⑤ 일망타진(一網打盡)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